

학력자본 재생산의 차별화와 빗장도시의 형성

최 은 영*

The Differentiation of Reproductions of Educational Capitals and the Formation of the Gated City

Eun-Young Choi*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학력자본이 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고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거주 비율이 높은 분리된 거주지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자녀 미래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사회집단들 간의 경계가 부와 빈곤의 지리적 집중에 의해 확대·강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차별화된 학력자본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강남구는 고학력집단의 지속적 집중과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비가시적이지만 견고한 사회·경제적 장벽을 갖는 빗장도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높은 주택 가격에 의한 타 계급에 대한 배제를 통해 이 지역의 교육환경은 장벽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전유되는 사회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학력자본의 재생산, 고학력집단, 거주지 분리, 빗장도시

Abstract : This research analyzes the differentiation of the reproduction of the educational capital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which is determin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the reproduction of the educational capital of the region where highly educated people are segregated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regions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The fact that one resides in a certain special area tends to determine the future of his child, so the boundary between the social groups is being intensified through the geographic concentration of the affluence and poverty. Gangnam Gu where the different educational capital is reproduced through the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tends to become the gated city which has the invisible but strong socio-economic barriers through the sharp rise of the housing(apartment) value and the concentration of highly educated people. Through the exclusion of other classes by the high price of the housing, only the residents within the barrier have access to the good educa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Key Words : the reproduction of the educational capital, highly educated group, residential segregation, gated city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일종의 권력이자 자본이며 불평등의 구조화와 고착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부모세대의 학력은 교육환경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자녀세대의 학력자본¹⁾으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타분야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관점과

분석이 결여되어 있어 학력자본 재생산이 지역별로 얼마나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었다. 많은 경우 사회적 삶의 공간성(spatiality)은 중요하면서도 분명하게 표현되기 보다는 가정되어 왔다. 개인이 획득하는 학력은 성장, 학교 교육, 사회 진출로 이어지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공간적 관점에 기반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 홍익대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Hong-Ik University) disel@unitel.co.kr

(Gibson and Asthana, 2000; Gramberg, 1998; Joans, 1998; Talen, 2001).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학업 성취의 지역차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공간은 부수적인 요소로 이를 테면, 도시나 지방이나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공간단위가 좀더 작아질 경우에도 학군이나 구를 단위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김영화, 1990; 방하남·김기현, 2002; 송명규, 1992). 그러나 이러한 단위는 교육환경과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지역차를 분석하는 공간단위가 될 수 없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작은 공간단위들을 합성한 큰 공간단위에서의 평균값에 대한 분석은 실제 존재하는 지역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행정동을 단위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자료의 이용 가능한 최소 공간단위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빈곤과 부의 지리적 경계가 대체로 행정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계급, 성, 연령, 직업, 인종 등에 의한 거주지 분리에 따른 새로운 도시를 묘사하는 용어로 빗장(gated), 새로운 성벽(new walled), 새로운 성채(new fortress) 등의 단어들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가시적·비가시적 장벽들로 인해 특정 장소가 특정 집단에 의해 점유되는 사적인 장소로 바뀌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적 양극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부의 형성과 재생산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육환경이 자녀세대의 학력자본 재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과정을 '빗장도시(gated city)'²⁾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빗장도시는 부유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대문이 있는 것과 같이 폐쇄적인 현상(Musterd and Winter, 1998)을 개념화 한 용어이다.

부모 세대의 거주지 분리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자원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자녀 세대에서 이와 같은 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정 지역의 높은 성적과 높은 학교 지위는 사회계급에 따른 거주지 분리 강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 학교 수준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

경이 교육에 있어서의 성취와 강하게 관련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Gramberg, 1998).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학력자본 재생산이 양적·질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례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인구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녀세대의 학력자본 재생산에 있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밝히기 위한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학력수준의 양적 차별화와 함께 동일 학력 내에서의 질적 차별화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력자본 재생산을 두 측면에서 모두 살펴보았다. 학력자본의 양적 재생산³⁾은 서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력자본 재생산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는 강남구와 광진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공간적 집중과 자녀세대 학력자본 재생산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사례지역으로는 강남구를 비교구로는 광진구를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에는 양극단을 비교하는 방법과 평균과 극단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광진구는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아파트 가격과 고학력집단⁴⁾ 비율이 대체로 서울시 평균과 유사한 지역이다. 연구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연구에 필요한 여러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아울러 고려하였다.

부모세대(45~59세 연령)의 고학력집단 비율과 자녀세대(19~20세 연령)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을 서울시 행정동 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별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의 양적 차이를 살펴보았다.⁵⁾ 대학에 다닐 연령(19~20세⁶⁾)의 인구수 대비 4년제 대학 재학자 수를 계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4년제 대학진학률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와 동일한 학력수준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 즉 학력자본의 양적 재생산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일 학력 내에서의 질적 차별화를 살펴보기 위해 강남구·광진구 각 1개 사례 고등학교의 2003년 입시 및 대학진학결

과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호하는 대학·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수학능력시험⁷⁾성적을 우선 살펴본 후 서울소재 4년제 대학진학률, 명문대·의대 진학률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계량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입시담당 교사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⁸⁾ 한편 강남구와 광진구의 아파트 매매가와 인구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집단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타적 전유 경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한 주요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raw data, 1990년), 인구가동통계조사 원자료(2000년), 사례 고등학교의 입시 및 대학진학 결과자료(2003년), 아파트 매매가 자료(1997~2003년)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ccess를 이용하여 각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데이터를 관리·조작하였다.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 8.2를 이용해서 연구 결과를 지도화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S-Plus 6.1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들에서 낮은 변량치에 치중되어 있는 정적 비대칭

(positive skewed) 정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도를 그리는데 사용된 ArcGIS 8.2의 자연적 분류(natural break)⁹⁾에 의해 계급을 나누고 지도화하였다.

2. 학력집단별 거주지 분리와 학력자본의 양적 재생산

별도의 범주 설정이 필요 없는 인종별 거주지 분리 연구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에 대한 거주지 분리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수는 직업, 학력, 소득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학력을 대체 변수로서 선정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 크고 중요하여, 학력은 삶의 동질성을

표 1. 고학력집단 비율 상위·하위 각 5개동의 학력 구성비

단위:명(%)

구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4년제미만 대학 졸업	4년제이상 대학 졸업	석사 졸업	박사 졸업	기타	
상위동	반포본동	13 (0.4)	34 (1.1)	589 (18.6)	338 (10.7)	1443 (45.5)	288 (9.1)	219 (6.9)	247 (7.8)
	서초 4동	42 (0.8)	78 (1.5)	873 (16.8)	563 (10.8)	2548 (49.1)	414 (8.0)	226 (4.4)	445 (8.6)
	압구정 1동	63 (1.4)	122 (2.8)	649 (14.8)	402 (9.2)	2112 (48.3)	347 (7.9)	307 (7.0)	370 (8.5)
	오륜동	17 (0.3)	32 (0.6)	746 (14.5)	556 (10.8)	2666 (51.6)	504 (9.8)	243 (4.7)	398 (7.7)
	잠실 7동	17 (0.6)	28 (1.0)	424 (15.8)	228 (8.5)	1441 (53.7)	233 (8.7)	136 (5.1)	174 (6.5)
하위동	강일동	316 (30.1)	307 (29.3)	283 (27.0)	12 (1.1)	29 (2.8)	4 (0.4)	0 (0.0)	98 (9.3)
	구로 4동	779 (29.6)	803 (30.5)	666 (25.3)	37 (1.4)	48 (1.8)	5 (0.2)	1 (0.0)	293 (11.1)
	미아 2동	824 (25.8)	962 (30.1)	995 (31.2)	35 (1.1)	82 (2.6)	12 (0.4)	3 (0.1)	279 (8.7)
	월곡 3동	571 (35.6)	527 (32.8)	288 (17.9)	13 (0.8)	19 (1.2)	3 (0.2)	0 (0.0)	185 (11.5)
	월곡 4동	72 (32.9)	64 (29.2)	51 (23.3)	1 (0.5)	6 (2.7)	0 (0.0)	0 (0.0)	25 (11.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변수인 동시에 집단간을 뚜렷하게 구분해 주는 단절성이라는 장점을 갖는 변수이다. 학력집단별 거주지 분리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서울 연령 성 및 교육 정도별 인구' 중 45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의 학력을 행정동별로 분석하였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인구는 고등교육 기회가 급격하게 확대된 1990년대 이전에 정규교육을 마친 세대이며, 현재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세대이다.¹⁰⁾ 일정 학력 이상의 집단을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갖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 사회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부모세대의 행정동별 고학력집단 비율은 최저 1.1%에서 최고 66.2%까지 나타나고 있으며(그림 1, 표 2), 서울시 평균은 15.5%이다. 대부분의 동은 고학력집단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으며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일부 행정동의 고학력집단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서초구 일부 동의 학부모는 둘 다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고학력집단의 비율이 낮은 대부분의 행정동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부모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고학력집단 구성의 지역별 차는 인종에 따라 거주지 분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 도시들과 비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이다. 백인 거주 지역에 흑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흑인 거주 지역에 백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고학력집단이 많이 거주하는 소수의 행정동에는 저학력집단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저학력집단이 많이 거주하는 다수의 행정동에는 고학력집단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다. 고학력집단 비율 상위 5개 동과 하위 5개 동의 학력구성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표 1). 고학력집단 비율이 높은 반포본동, 서초4동, 압구정1동, 오륜동, 잠실7동에는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거의 없다. 고학력집단 비율이 가장 높은 오륜동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는 45~59세 인구의 0.3%, 중학교 졸업자는 0.6%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학력집단 비율이 가장 낮은 강일동, 구로4동, 미아2동, 월곡3동, 월곡4동에는 4년제 미

만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거의 없다. 고학력집단 비율이 가장 낮은 월곡3동의 경우 4년제 미만의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0.8%,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1.2%, 석사 졸업 인구가 0.2%로 나타나고 있으며, 박사 졸업 인구는 전혀 없다. 고학력집단 비율 상위동의 박사 졸업 인구 비율은 하위동에서 4년제 미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포본동과 오륜동은 박사 졸업 인구 비율이 약 7%에 이르는 반면 5개 하위동 모두에서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74.2%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전문대를 포함하는 4년제 미만 대학으로의 진학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보상이 비교적 유사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한정하기 위해 4년제 이상의 대학에 대한 진학으로 제한하였다. 부모세대의 고학력집단 비율과 자녀세대의 대학 재학 비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에서 이레지점(outlier)이 추출되었는데, 이레지점들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치지도를 살펴본 결과 대학총과의 연관관계가 파악되어 4년제 대학¹¹⁾의 대학총을 추출하였다(그림 2). 강남3구의 자녀세대 대학 재학 비율 상위동이 모두 대학총이 아닌데 비해, 다른 구에 속해 있는 상위동들은 대부분 대학총으로 나타났다. 자녀세대의 대학 재학

표 2. 행정동별 부모세대 고학력집단 비율 및 자녀세대 대학 재학 비율(2000년)

대학 졸업 및 대학 재학 비율(%)	부모세대(대학 졸업)		자녀세대(대학 재학)	
	동수	비율(%)	동수	비율(%)
0~10	225	44.8	-	-
10~20	161	32.1	16	3.2
20~30	54	10.8	69	13.7
30~40	22	4.4	100	19.9
40~50	20	4.0	165	33.0
50~60	14	2.8	30	6.0
60~70	6	1.2	19	3.8
70~80	-	-	1	0.2
전체	502	100.0	502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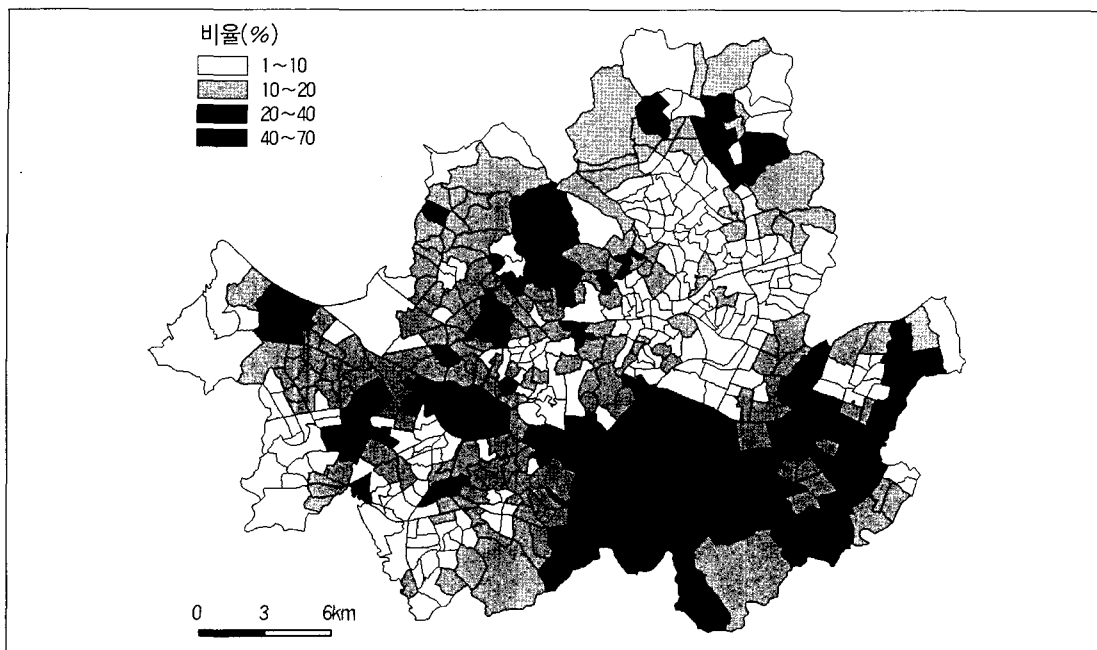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행정동별 부모세대(45~59세)의 대졸이상 인구비율(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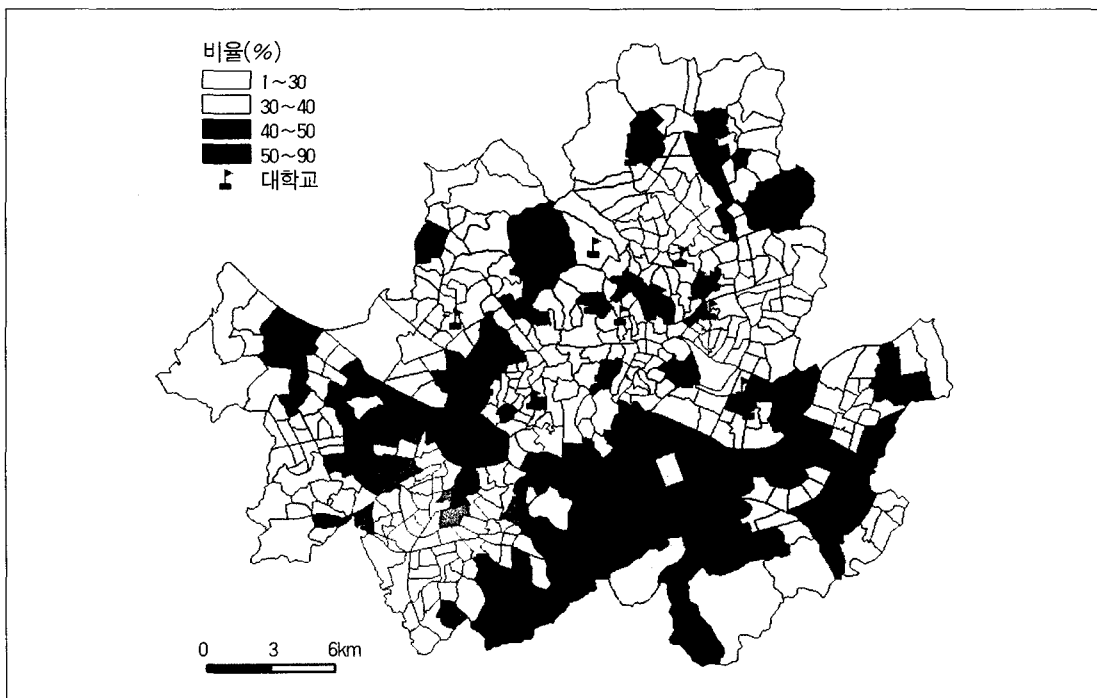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행정동별 자녀세대(19~20세)의 대학 재학 비율(2000년)

주: 대학촌을 구분하기 위해 대학교 위치를 표시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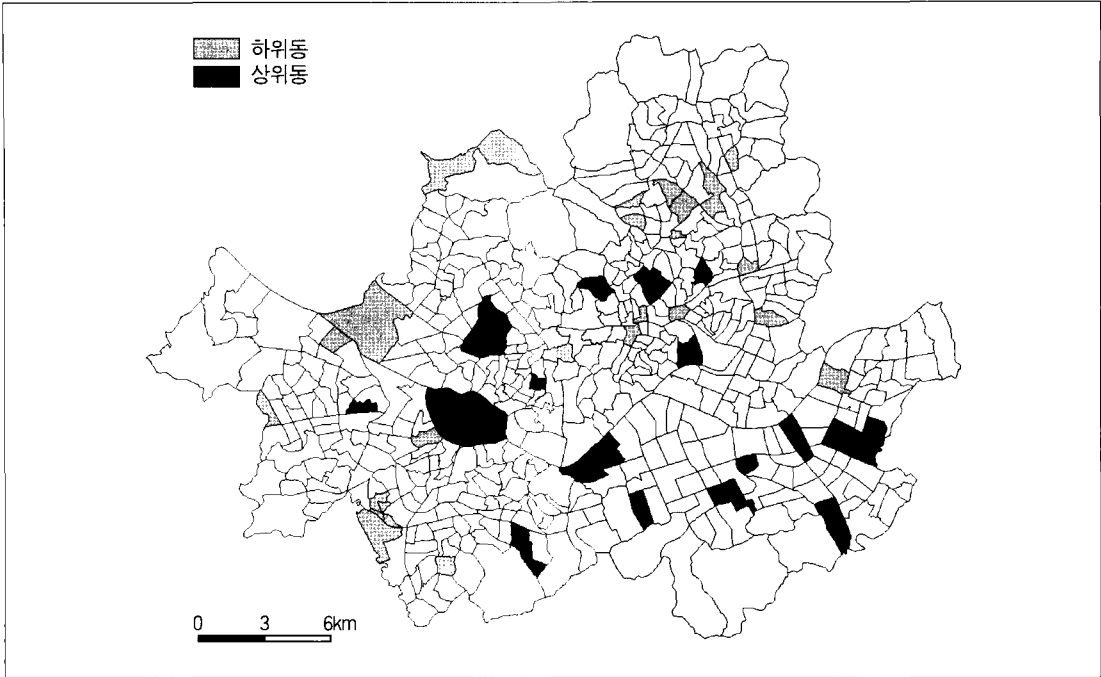


그림 3. 19~20세 대학 재학 비율 상위·하위 각 25개동(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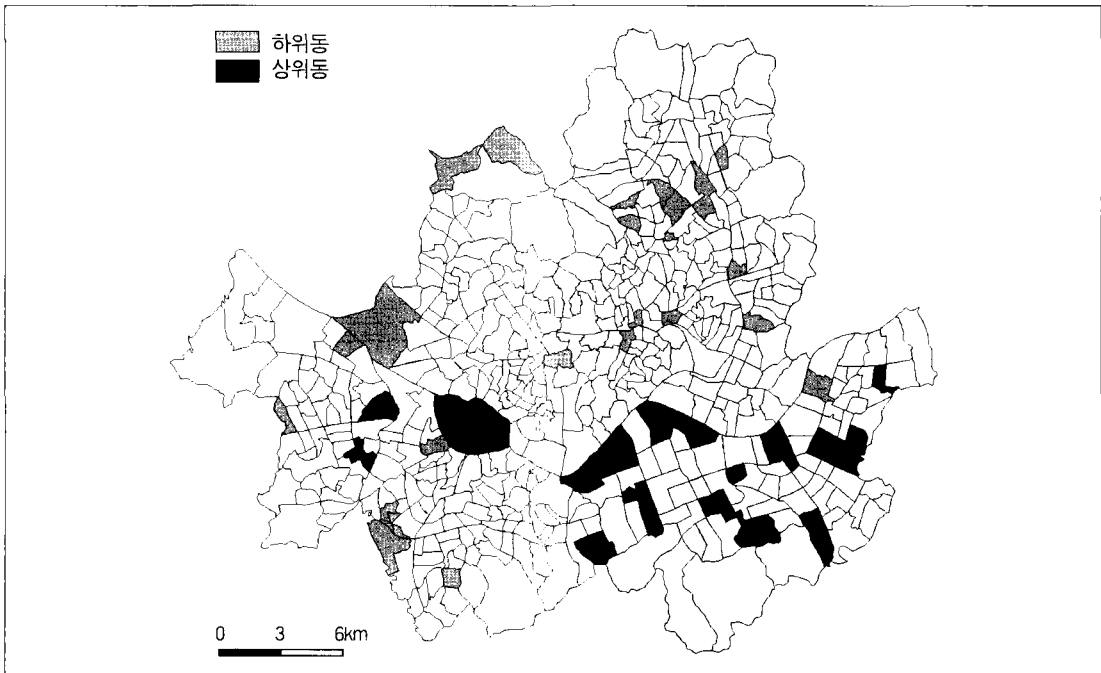


그림 4. 19~20세 대학 재학 비율 상위·하위 각 25개동(2000년, 대학촌 제외)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비율 상위·하위 각 25개 동을 지도화하면(그림 3), 상위동의 분포가 임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학촌을 제외하고 지도화하면(그림 4) 강남3구에 상위동이 집중되어 있음이 두드러진다. 대학촌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하숙방과 자취방이 밀집되어 있

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높은 대학 재학 비율은 해당지역의 4년제 대학진학 비율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대학촌인 20개 동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¹²⁾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을 우선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50.1%, 서초구 53.8%, 송파구

표 3. 부모세대 고학력집단 비율·자녀세대 대학 재학 비율 상위 50개동의 비교(2000년)

구	고학력집단 비율 상위동(45~59세)	대학 재학 비율 상위동(19~20세)	구	고학력집단 비율 상위동(45~59세)	대학 재학 비율 상위동(19~20세)	
강남구	개포1동	개포1동	서초구	반포1동	—	
	개포3동	개포3동		반포2동	반포2동	
	개포4동	-		반포3동	반포3동	
	논현2동	논현2동		반포4동	반포4동	
	대치1동	대치1동		반포본동	반포본동	
	대치2동	대치2동		방배3동	방배3동	
	대치3동	대치3동		방배본동	방배본동	
	대치4동	-		서초1동	서초1동	
	도곡1동	도곡1동		서초2동	서초2동	
	도곡2동	도곡2동		서초4동	서초4동	
	삼성1동	삼성1동		잠원동	잠원동	
	삼성2동	삼성2동		가락2동	가락2동	
	신사동	신사동		문정2동	문정2동	
	압구정1동	압구정1동		방이1동	-	
	압구정2동	압구정2동		송파2동	송파2동	
	강동구	역삼2동		-	송파구	오금동
일원본동		일원본동	오륜동	오륜동		
청담1동		청담1동	-	잠실2동		
청담2동		-	-	잠실3동		
둔촌1동		둔촌1동	잠실5동	잠실5동		
명일2동		명일2동	잠실6동	잠실6동		
광진구	광장동	광장동	잠실7동	잠실7동		
	-	구의3동	목5동	목5동		
노원구	-	상계6동	양천구	목6동		목6동
	-	상계9동		신정6동		신정6동
도봉구	방학4동	방학4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동	
	-	쌍문4동	용산구	이촌1동	이촌1동	
동작구	-	대방동	종로구	평창동	—	
	사당2동	사당2동				
마포구	-	서교동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44.5%로 서울시 평균인 3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도 가장 낮은 중랑구(27.7%), 강북구(26.6%), 금천구(26.6%) 등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최고동이 74.6%, 최저동이 10.1%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떤 행정동에 살고 있는 대부분(10명 중 7.5명)의 고등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하지만 어떤동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매우 작은 비율(10명중 1명)의 학생만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서울시 평균(35%)보다 낮은 동 가운데 10%대에 속해 있는 동이 16개 동, 20%대에 속해 있는 동이 69개 동이며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동 가운데 60%대에 속해 있는 동이 19개 동, 70%대에 속해 있는 동이 1개 동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부모세대의 고학력집단 비율이 높은 동과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동은 공간적으로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부모 학력과 자녀 학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74.6%를 보이고 있는 오륜동인데, 이 지역은 부모세대의 고학력집단 비율도 66.2%로 가장 높다. 오륜동, 대치2동(66.9%), 목5동(66.9%), 잠실7동(66.1%), 반포3동(65.6%), 반포본동(65.1%) 순으로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부모세대의 고학력집단 비율 또한 매우 높은 동들이다.

대학촌인 20개 동을 제외한 부모세대 대졸 비율 상위 50개 동과 자녀세대 대학 재학 비율 상위 50개 동을 비교하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표 3). 정해진 기준에 따라 502개 동 중에서 50개 동씩을 추출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현상은 매우 드물 것이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강동구의 둔촌1동·명일2동, 광진구의 광장동·구의3동, 노원구의 상계6동·상계9동, 도봉구의 방학4동·쌍문4동, 동작구의 대방동, 마포구의 서교동, 양천구의 목5동·목6동·신정6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이촌1동만이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상위 50개 동안에 포함되는 동들인데, 이 동들은 부모세대의 학력수준이 높고 아파트 가격도 높은 동들이다.

각동에 거주하는 부모세대의 고학력집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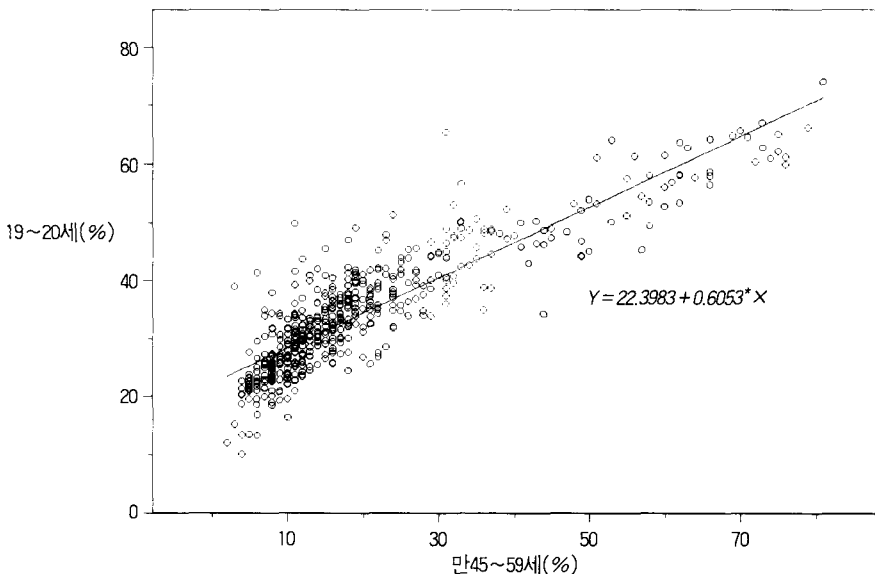


그림 5. 45~59세 고학력집단 비율과 19~20세 대학 재학 비율의 회귀식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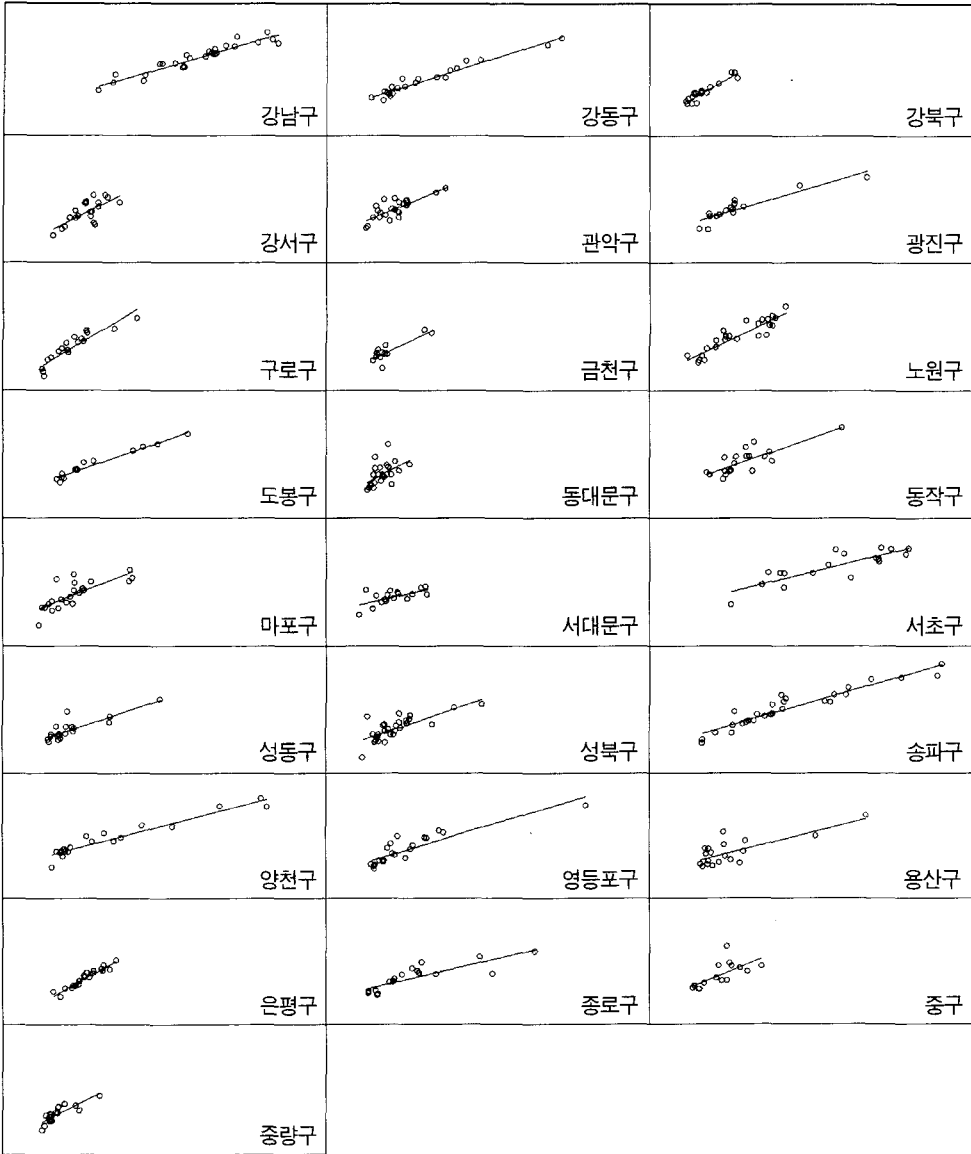


그림 6. 구별 45~59세 고학력집단 비율과 19~20세 대학 재학 비율과의 관계

과 자녀세대의 대학 재학 비율의 상관계수는 0.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회귀모델은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R^2)는 0.78을 보였다. 이는 행정동별 자녀세대의 대학 재학 비율 변이의 78%가 부모세대의 학력수준에 의해 설명 됨을 의미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에서 자녀세대

의 4년제 대학재학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부모세대의 학력수준이 높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학력수준이 낮은 강북3구(중랑구, 강북구, 도봉구)를 대별하여 분석하면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는 더 증가하는데, 강남3구 72개 동의 상관계수는 0.92, 강북3구 52개 동의 상관계수는 0.94로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회귀모델 역시 매우 유의적으로 강남3구의 결정계수(R^2)는 0.84, 강북3구의 결정계수(R^2)는 0.88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구별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회귀선¹³⁾을 크게 벗어나는 이례지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구에서 회귀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세대의 고학력집단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세대의 학력도 낮고 자녀세대의 대학 재학 비율도 낮은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의 회귀선은 좌측하단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동별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의 격차는 부모 세대의 학력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학력수준이 높은 학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동에서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세대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동과 자녀세대에서 4년제 대학 재학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동을 비교를 통해,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별로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은 매우 큰 차를 보이고 있어 학력자본의 양적 재생산은 지역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학력자본 재생산의 질적 차별화

전반적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동일 학력 내에서의 질적 차를 재생산 하는 것, 즉

보다 선호되는 대학, 선호되는 학과에 자녀를 진학 시키는 것은 부모세대의 양적 학력수준을 자녀세대의 학력수준으로 재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례고등학교¹⁴⁾의 입시 및 대학진학 결과 자료를 중심으로 학력자본 재생산의 질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강남구 사례고에서는 수능을 치르지 않거나 수능에서 일정 등급 안에 포함되면 대학에 합격하는 수시모집¹⁵⁾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광진구 사례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학력 격차를 수능 성적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지역간 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능성적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대학, 선호하는 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수능성적에 있어서의 차를 살펴본 다음 대학진학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보다 선호되는 서울소재 대학과 명문대(의대포함)에 대한 진학률의 차를 통해 사례지역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의 질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지역차

변환표준점수¹⁶⁾로 환산된 사례 고등학교 수능성적의 반평균 분포를 살펴본 그림 7에 의하면 반평균이 강남구 사례고의 경우 270~33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광진구 사례고는 240~29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사례고 반평균의 대부분은 광진구에서 반평균이 가장 높은 반이 속한 구간에(280~290점) 속해 있다. 강남구 사례고에도 수능성적이 낮아 반평균을 낮추는 학생들이 전혀 없지 않고 학급별 최고 점수 역시 대체로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 평균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강남구 사례 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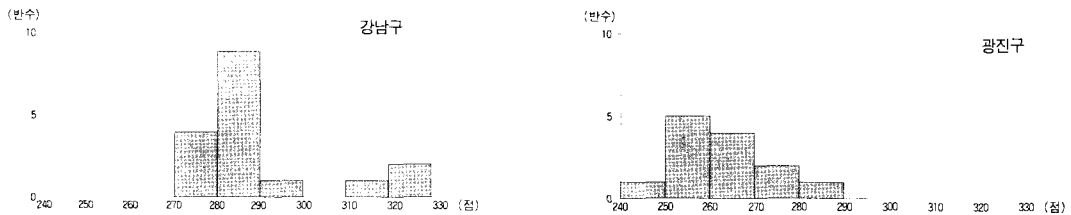


그림 7. 사례 고등학교 수능성적의 반평균 분포
자료: 사례고 입시자료(2003년).

표 4. 사례 고등학교 변환표준점수의 구간별 분포

점수 구간	강남구 사례고		광진구 사례고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50점 이상	47	8.2	17	3.0
300~350점	207	36.3	93	16.3
250~300점	198	34.7	211	37.0
200~250점	110	19.3	219	38.4
200점 미만	9	1.6	31	5.4
전체	571	100	571	100

자료: 사례고 입시자료(2003년).

학교의 중·상위권 학생층이 매우 두텁기 때문이다.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들의 변환표준점수 평균이 강남구 사례고등학교에서는 338.8점, 광진구 사례고등학교에서는 313.4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고등학교 학생들의 변환표준점수의 구간별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광진구 사례고에서는 35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한 반에 1~2명, 가장 많은 반이 3명인데 반해, 강남구 사례고에

서는 350점 이상 득점자가 문과반의 경우 1~4명, 이과반의 경우 7~8명에 이르고 있다. 강남구 사례고의 350점 이상 고득점자 비율은 광진구 사례고의 3배에 가까우며, 300점 이상 득점자 비율도 2배 이상 차이 난다. 강남구의 많은 성적 우수자들이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 1학기 수시모집으로 이미 대학에 진학한 점을 고려하면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실제적 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0~250점 사이의 득점자 비율은 광진구 사례고에서 2배 이상, 200점 미만의 득점자 비율은 3배 이상 높다. 4년제 대학에 진학이 어려운 250점 미만의 득점자 비율이 강남구 사례고에서는 20.9%인 반면, 광진구 사례고에서는 43.8%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강남구 사례고에서는 10명 중 2명이 광진구 사례고에서는 10명중 4.4명, 즉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성적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강남구 사례고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점수대는 300~350점대이지만, 광진구 사례고에서는 200~250점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다.

표 5. 사례 고등학교의 학급별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입학 인원 및 비율

반	강남구 사례고				광진구 사례고			
	서울소재대학 입학자수(명)			서울소재 대학 입학비율(%)	서울소재대학 입학자수(명)			서울소재 대학 입학비율(%)
	수시	정시	총계		수시	정시	총계	
1	9	4	13	33	—	2	2	5
2	9	3	12	32	—	5	5	12
3	4	5	9	24	5	0	4	9
4	8	5	13	34	2	5	7	16
5	8	4	12	33	2	6	8	18
6	8	6	14	37	2	2	4	9
7	5	2	7	18	1	5	6	13
8	4	8	12	32	1	7	8	18
9	7	5	12	33	6	8	14	26
10	6	8	14	40	5	7	12	22
11	9	7	16	46	3	0	3	6
12	6	8	14	40	7	7	14	37
13	5	15	20	51				
14	11	11	22	58				
15	8	13	21	55				

자료: 사례고 입시자료(2003년).

2) 서울소재 대학 및 명문대 진학에 있어서의 지역차

수시 및 특차, 정시 전형 결과를 모두 포함해서 두 사례 고등학교의 서울소재 대학 입학 인원 및 비율을 학급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강남구 사례고는 600¹⁷⁾명중에서 248명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반면, 광진구 사례고에서는 600명 중에서 94명만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다. 사례 고등학교의 학급별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입학 비율이 강남구에서는 최저 18%에서 최고 58%인 반면 광진구에서는 최저 5%에서 최고 3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는 앞에서 살펴본 수능성적과도 관련되지만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의 영향력이 적은 수시에 의해서도 현격한 차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구 사례고의 경우는 600명중에서 113명이 광진구 사례고의 경우는 600명중에서 23명만이 수시로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였다. 강남구 사례고의 경우 한 반에 6~7명이, 광진구 사례고의 경우 한 반에 1~2명이 수시로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수시모집 전형이 내신성적을 많이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시모집에 의한 대학진학이 학교별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논리적으로 이상하지만 교사들은 그나마 수시모집이 대학 입학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시모집마저 없다면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이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작아진다고 한다.

사례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표 6에 의하면 명문대 및 의대 진학 비율에서 매우 극단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강남과 강북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진학 학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진학자의 총 숫자로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지역차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¹⁸⁾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하지 못하였고 명문대 진학자 수를 통해 두 지역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학력자본의 질적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의과대학으로의 진학 통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진학 학과에 있어서의 차를 살펴보았다. 대학과 학과를 둘러싼 사회 집단들간의 경쟁은 매우 심화되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정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과대학으로의 진학이다.¹⁹⁾ 광진구 사례고에는 의대 진학생이 한 명도 없는 반면 강남구 사례고에서는 17명이 의대에 진학했다. 의대 진학 학생수는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학력자본의 질적차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0명과 17명의 차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간계급 이상의 계급 지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뚜렷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 불합격자 및 미진학자 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도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차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별로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은 매우 큰 차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및 명문대(지방의대 포함) 입학률도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력자본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재생산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일치한다.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그렇다(41.8%)와 다소 그렇다(50.5%)고 응답하고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극소수로 나타나고 있다(표 7).

표 6. 사례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결과 비교

진학결과	사례고	
	강남구(명)	광진구(명)
서울대	8	4
고려대	19	3
연세대	10	5
의대진학	17	없음
서울소재대학	248	94
4년제 대학 불합격자 및 미진학자	188	319
총 계	600	600

자료 : 사례고 입시자료(2003년).

표 7.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영향 정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38	41.8
다소 그렇다	46	50.5
그저 그렇다	5	5.5
거의 그렇지 않다	2	2.2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총계	91	100.0

자료: 설문조사(학부모).

4. 빗장도시의 형성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취가 달라짐에 따라 불리한 교육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탈주(flight)가 발생하여 유리한 교육환경을 가진 지역으로의 집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주 계층은 거주 환경이 좋은 특정 거주지로 선별적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특정 집단은 특정한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와 집단적인 거주를 통해 배제의 지리를 확립하려는 공간적 실천을 하는 경향이 있다(이상일, 1995). 이러한 배제의 지리, 즉 진입장벽은 주택 가격이라는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은 일반 가구의 가장 큰 자산이며 임금노동자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고가의 상품으로 특정 지역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의 임계치를 높인다. 자녀의 학력자본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강남구와 광진구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 가격이 서울시 평균과 유사한 광진구에서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가장 높은 동(광장동, 구의3동)이 강남구에서 가장 평당 매매가가 낮은 동과 같은 구간에 속해 있을 정도로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8). 이는 주택 소유 형태를 바꾸지 않고 광진구에서 강남구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나 평당 가격과 같은 비율 데이터도 의미가 있지만 절대값의 차는 실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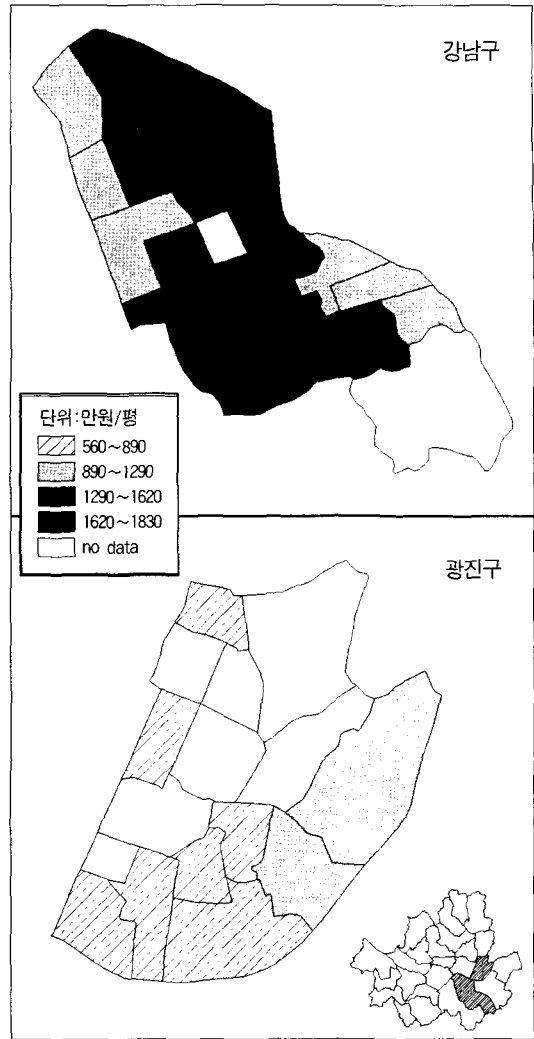


그림 8. 강남구·광진구의 행정동별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2003년).

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광장동·노유동(광진구), 대치1동·대치2동(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들의 절대 가격을 살펴보았다. 아파트 가격의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30평~35평에 속하는 아파트를 선택한 후 평당 가격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사례 아파트의 평당 매매 가격을 32평 아파트로 통일시켰다. 32평 아파트의 단지별 매매가 변화는 그림 9와 같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들은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광진구 아파트 단지들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는데, 지역에 따른 매매가의 양극화 경향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에만 하더라도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광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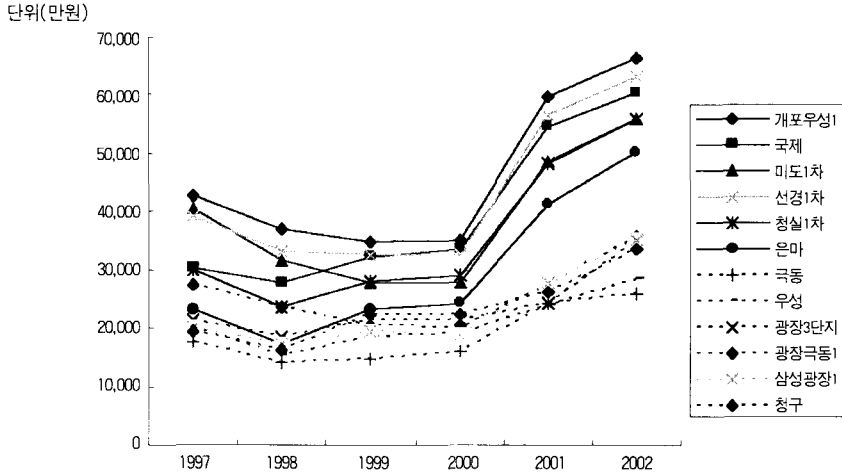


그림 9. 강남구·광진구 32평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화(1997~2003년)

아파트들과 유사한 가격을 보였으나 2001년 이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매매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게 되었다. 1997년에서 2003년 사이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 3천만원에서 4억 9천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광장동 극동아파트는 2억 1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노유동 우성아파

트는 2억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상승해 뚜렷이 차별화 되었다.

아파트 가격의 차가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각 구에서 강남구로 전입하는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같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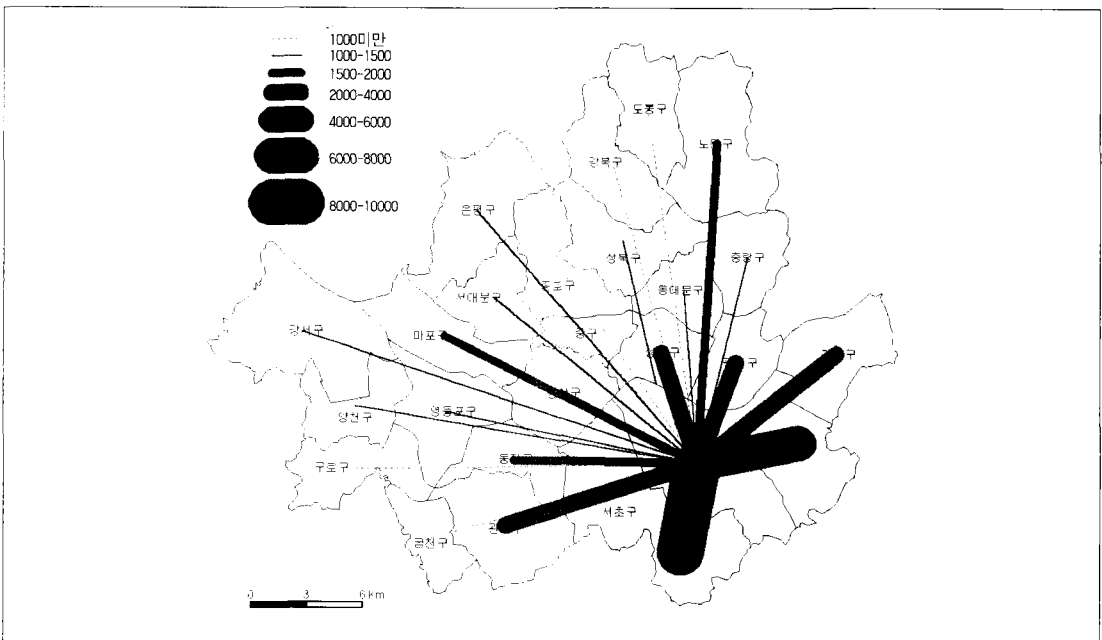


그림 10. 구별 강남구로의 전입 인구수
자료: 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00년).

내 인구이동이 탁월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구안에서 이동하는 비율(44.1%)이 가장 높으며, 인근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구에서 전입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다. 강남구(44.1%), 서초구(11.5%), 송파구(8.6%)에서 전입하는 비율이 서울시 안에서 이동한 전체 인구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구로 전입하는 인구가 1,000명 미만으로 적은 구는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로 이 구들은 아파트 가격과 학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구들이다.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가진 구에서의 인구 이동이 많은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인구이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과 학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구에서 강남구로 적은 수의 가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거주지 이동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질의 거주 환경에 대한 비용 지불 능력이 거주지 이동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거주지 선택은 단순히 선호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구조화되고 있다. 구조화된다는 의미는 개인들이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인 요소들은 개인의 영향력 밖에 있으며, 이것은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을 만든다. 개인이 어디에 사는가는 개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구조적인 요소들은 지리적으로 정의된다. 지난 1997~2003년 사이에 발생한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의해 고학력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강화되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공간이동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양호한 교육환경을 가진 사례지역인 강남구는 비가시적이지만 견고한 사회·경제적 장벽에 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빗장도시가 되고 있다. 이 새로운 도시에서는 장벽 안에 거주하는 가구에게만 높은 질의 배타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양호한 교육환경을 가진 강남구는 높은 아파트 가격과 거주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진입 장벽을 통해 동질적인 집단의 이주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 결론

고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거주 비율이 높은 분리된 거주지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집단 거주 비율이 높은 행정동의 자녀세대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은 높으며 고학력집단 거주 비율이 낮은 행정동의 자녀세대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강남구와 광진구 사례 고등학교의 2003년 입시 및 대학 진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및 명문대(지방의대 포함) 입학에 있어 지역간에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지역의 높은 학력과 높은 학교 지위는 이것이 특정 집단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와 빈곤의 지리적 집중에 의해 사회집단들 간의 경계가 확대·강화되고 특정 지역에의 거주자체가 자녀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서울에서는 지역에 따라 학교 수준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에 있어서의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집단별 거주지 분리에 의해 형성된 양호한 교육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다른 계급에 대한 배제를 통해 양호한 교육환경을 유지·강화시킴으로써 자녀의 학력자본 재생산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사회계급에 따른 거주지 분리와 불평등이 강화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높은 주택 가격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배제를 통해 강남구의 학력자본 재생산에 있어서의 우위는 장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유되는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환경을 통해 공간은 부가 재생산되는 자원이 되고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장벽을 칠 수 있는 자원이며 특권을 생산하는 자원이 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와 그 사회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였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규정하는 규범적인 담론과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들이 간과되어 왔다. 거주지 분리 강화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빗장도시의 형성은 편견과 차별에 의한 인종별 거주지 분리와 유사한 과정과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수가 다수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인종별 거주지 분리와 구분될 뿐 아파트 가격이라는 경제적 장벽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선별적 진입만을 허용함으로써 양호한 교육환경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 학력자본 재생산을 차별화시키는 타자에 대한 배제라는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지 분리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회가 어떻게 공간에 의해 형성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사회적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은 보다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 재생산의 지역차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그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거주지 분리에 의한 빗장도시의 형성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근거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註

- 1) Bourdieu는 자본을 경제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경쟁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로 보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학력자본은 학교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학력 및 그것에 부수되는 다양한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적 가치의 총체인데 일반적으로 학위에 의해 측정된다(P. Bourdieu, 1979, 11).
- 2) 폐쇄성이 나타나는 공간의 규모에 따라 빗장도시와 빗장지역(gated commun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래 빗장지역이란 구미와 동남 아시아의 도시에서 관찰되는 사설경비시설이 갖춰진 작은 공간 규모의 최고급 주거지역을 가리키지만(남영우·최재현, 2001), 본 연구에서 관찰된 폐쇄성의 공간 규모가 지역(communitiy)과는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빗장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3) 자료의 성격상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 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학진학 여부만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양적 분석이라 볼 수 있다.
- 4)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고학력집단으로 정의하였다.

- 5) 공간적인 분석이 유의미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개별 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데이터, 학업성취 데이터, 거주지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행동동별로 합역된 자료를 사용한 한계를 가진다.

구분	고등학교	특성
강남구 (전체 16개교/6개교 설문)	A교	여고, 사립고
	B교	남고, 사립고
	C교	남고, 사립고
	D교	공학, 공립고
	E교	남고, 공립고
	F교	공학, 사립고
광진구 (전체 7개교/4개교 설문)	G교	공학, 공립고
	H교	공학, 공립고
	I교	공학, 사립고
	J교	남고, 사립고

- 6) 군대 등의 영향을 받아 분석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요소가 적은 연령대를 선택하였다.
- 7) 이하 수능이라 표현한다.
- 8) 설문조사는 2003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여일 동안 직접기입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면담조사도 같은 시기에 병행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가 실시된 고등학교는 강남구의 16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 6개교, 광진구의 7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 4개교이며 각 학교의 개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9) 이 방법은 데이터의 급간을 구분하는 브레이크 포인트(break point)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공식인 Zenk's optimization 기법을 사용한다.
- 10)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대략 25세(1990년)에서 27세(2002년)이며 남성의 초혼 연령이 대략 28세(1990년)에서 30세(2002년)인 점을 감안하여 부모세대의 연령을 정하였다.
-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41개교 중에서 교육대학, 신학대학을 제외한 대학교.
- 12) 이 지역의 거주지로서의 좋은 이미지 때문에 지방 고등학교 출신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어 강남 3구 19~20세 인구의 대학 재학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 13) 구별 회귀식은 사례동이 적어 이례지점이나 값이 큰 지점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구하지 않고 전반적인 경향만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14) 2003년 입시를 담당했던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그리고 진학자에 대한 통계표를 통해 두 사례교의 입시결과가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강남구와 광진구에 소재한 다른 고등학교들의 입시결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5) 2003년 수시모집의 입학 전형은 대체로 1차는 내신, 2차는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 16) 변환표준점수는 표준점수에 각 과목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 그 총합을 낸 것이다. 표준점수는 평균에서 얼마나 자신이 떨어져 있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변환표준점수는 각 영역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 17) 사례고등학교의 익명성을 위해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 18) 강남 F고 교사 인터뷰.
- 19) 최근 대학 입시 결과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대 입학 인원보다 의대 입학 인원에 맞추어지고 있다고 한다. 플래카드 등을 통해 학교의 진학 결과를 선전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의대 입학 인원이라 한다(교사 인터뷰).

文 獻

- 김영화, 1990, “고등학교 팽창의 결과 - 고등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출신배경의 영향추이 (1967-1984) -,” *교육학연구*, 28(3), 65-81.
- 남영우·최재현, 2004,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서울.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 *한국사회학*, 36(4), 193-222.
- 송명규, 1992, “학군의 질과 명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서울시의 경우 -,” *지역사회개발연구*, 17(1), 91-106.
- 이기석, 1980, “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재, 127-172.
- 이상일, 1995, “베에르 부르디외의 사회지리학 - 문화와 소비의 사회지리학을 지향하며 -,” *응용지리*, 18, 57-101.
- 최종철(역), 1995,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 새물결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 부동산뱅크, *부동산뱅크자료*(1997년, 1998년, 2001년, 2003년).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0, *인구이동통계조사*.
- 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 Gibson, A. and Asthana, S., 2000, Local markets and the polarization of public-sector schools in England and Wal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5(3), 303-319.
- Gramberg, P., 1998, School segregation: the case of Amsterdam, *Urban Studies*, 35(3), 547-564.
- Harris, R., 1984, Residential segregation and class formation in the capitalist city: a review and direction for resear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8(1), 26-49.
- Joans, A. E. G., 1998, Busing, ‘White flight’ and the role of developers in the continuous suburbanization of Franklin county, *Urban Affairs*, 34(2), 340-358.
- Macleod, G., 2002, From urban entrepreneurialism to a “revanchist city”? on the spatial injustices of Glasgow’s renaissance, *Antipode*, 34(3), 602-624.
- Massey, D. S. and Denton, N.,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assey, D. S., 1996, The age of extreme: concentration of affluence and pover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ography*, 33(4), 395-412.
- Musterd, S. and Marielle de Winter, 1998, Conditions for spatial segregation: some European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2(4), 665-706.
- Orfield, M., 2002, *American Metropolitcs: The New Urban Realit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Talen, E., 2001, School, community and spatial equ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ess to elementary school in West Virgini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3), 465-486.
- Webster, C., 2001, Gated cities of tomorrow, *Town Planning Review*, 72(2), 149-169.

최초투고일 04. 04. 30
최종접수일 04. 06. 21